

주요기사 해설

2007-08-29

● 증권거래소 상장 전격 보류

작년 11월부터 준비해 10월에 상장할 예정이었던 거래소의 IPO추진이 전격 보류되었다. 이는 공익성 확보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정부의 제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거래소가 상장에 앞서 공정기능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며, 시장 감시와 상장심사, 수수료 결정 등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충분한 정보 방화벽(Chinese Wall)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으나, 정부는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소법 개정을 통한 공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거래소측은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어 종단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29일 오전 10시 현재 거래소 금융업지수는 전일대비 2.76%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근 공급 부족 현상 심화

철근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철근가격의 급등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데다 국내 철강사들의 철근 재고가 바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철근업체들이 생산 감소를 보이고 있어 철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 철근 수요의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0mm와 13mm는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산 즉시 출하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철근 내수 가격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후판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